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5년 9월 20일(주일) 제1066호



지난해 열린 추석연합집회 참가자들.

추석연합집회 'Build up'

26~28일 Acts29 비전빌리지 ... 이주민 650명 참가
성인 봉사자 모집 중 ... 임직대상자 봉사시간 부여

이주민을 위한 추석연합집회가 옛새
앞으로 다가왔다. 행사 주최 측인 온누
리M미션은 "찾아오는 선교지 이주민
들을 위한 또 한 번의 전국전치가 펼쳐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5 추석연합집회는 'Build up'을
주제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개최된다. 네팔, 리시
아, 태국, 아랍, 몽골,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우즈베키스
탄 등 13개국에서 온 이주민 6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열방에서 모인 이주
민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역자로
거듭나는 축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추석연합집회에서는 4편의 예
배와 국제문화축제, 팀 대항 야외활동,
나라별 음식 페스티벌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아치트 전도사

Life, 유세르게이 목사 Family, 데벤드
라 목사 Country, 김창욱 전도사
Kingdom을 주제로 이주민들에게 하
나님의 말씀을 전할 예정이다.

온누리M미션에서는 이주민들을 섬
겨 줄 봉사자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다.

성인 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약 150명의 봉사자가 필요하

다. 추석연합집회 봉사자로 섬기는 임
직 대상자들에게는 봉사시간이 부여
된다.

한편 온누리M미션에서는 매년 추석
연합집회를 열어 타국에서 외롭게 지
내고 있는 이주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거
듭나도록 돕고 있다.

문의: 010-3337-3327

후원계좌:

하나은행 573-810031-74605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 개최

9월 27~29일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위한 축제가
막 오른다. '2015 햇불디아스포라 선
교대회'가 9월 27~29일 햇불선교센터
에서 열린다.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는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을
초청해 국내 교회와 자매결연 맺어주
고,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주
는 행사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700
만 명이나 되는 한인 디아스포라들의
만족성을 깨어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아닐 수 없다. 살고 있는 나라의 문화
와 언어가 익숙한 한인 디아스포라들
을 선교사로 재파송하는 효과도 있다.

2015 햇불디아스포라 선교대회에서
는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목
사), 김승욱 목사(할렐루야교회), 김하
중 장로(전 통일부장관), 권혁빈 목사
(온누리교회) 등이 강의한다. 회비는 7
만원.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

창립기념주일, 부흥비전집회, Celebration, 올라라 한반도여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가 막
오른다. 지난 3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30년을 준비하는 축제가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이어진다.

10월 4일은 온누리교회 창립기념주

일이다. 창립 30주년인 올해 맞이하는
창립기념주일은 여느 때보다 뜻 깊다.
이날 모든 성도들이 교회 창립을 축하
하는 장(場)이 펼쳐진다.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오후 7시 30

분에는 '부흥비전집회'가 열린다. 이
재훈 목사가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설교하고, 캠퍼스에 중계된다. 10월 9
일은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 축제의
하이라이트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

년 Celebration과 '올라라 한반도여'
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
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이 자리에서 온
누리교회의 새로운 30년 비전을 선포
할 예정이다. 공동체별로 준비된 버스
로 이동할 예정이다.

/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인물_ 만나고 싶었습니다 2면 기획_ 크리스천으로서 명절을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내기 4-5면 절기_ 추석감사 및 추모예배 6면

“NGO 더멋진세상은 최고의 파트너”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 함께 사역한 파울로 선교사

NGO 더멋진세상은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등지에서 고통 받고 있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서의 활약이 대단하다. 어린이 생명 살리기 사업, 학교 건축 사업, 식수개선 사업 등을 이어오고 있다. NGO 더멋진세상이 본나바 마을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그곳에서 먼저 사역하고 있던 브라질 선교사 파울로 덕분이다. NGO 더멋진세상과 파울로 선교사는 2012년에 처음 만났다. 그를 만났기 때문에 본나바 마을에서 사역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파울로 선교사도 “NGO 더멋진세상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다. 5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파울로 선교사의 눈에 비친 NGO 더멋진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파울로 선교사는 세네갈 본나바 마을에 처음 갔던 일이 어제처럼 생생하다고 했다. 어느 날 본나바 마을 학교에서 사용할 벤치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는 정성껏 벤치를 만들어 마을로 향했다. 찾아간 곳은 학교라고 부르기도 민망했다. 공간이 너무 협소했기 때문이다. 만들어진 벤치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무용지물이었다. 그 좁은 학교에 50여 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 학교를 보고 내가 이 아이들과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내가 이곳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보여 달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아이들과 마을을 돕고 싶으면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라고 하셨다. 그렇게 그와 그의 가족들은 본나바 마을 주민이 되었다.

종교지도자 우스타스의 꿈이야기

본나바 마을은 기대와 달라도 너무 달랐다. 그들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 그 누구도 희망을 품고 있지 않았다. 과거의 모습대로 현재를 살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다시 기도했다.

“하나님, 본나바 마을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면 마을에 희망을 심을 수 있는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

파울로 선교사는 본나바에 머물리는 메시지를 듣고 가족들과 함께 살 거주지를 마련했다. 그런데 외지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했다. 특히 종교지도자들의 반감이 심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종교지도자 ‘우스타스’였다. 파울로 선교사는 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지를 고민했다.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우스타스와 가장 친한 친구가 되라고 하셨다. 파울로 선교사의 아내 루시가 우스타스의 자녀들을 돌봐주기 시작했다.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다. 그러자 우스타스가

마을에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땅을 허락했다고 한다.

파울로 선교사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다. 원수처럼 생각하더니 왜 생각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졌다. 우스타스는 특별한 꿈을 꾸었다고 대답했다. 그가 들려 준 꿈 내용은 놀라웠다.

‘우스타스가 큰 나무 밑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 키가 큰 사람과 키 작은 사람이 마을로 걸어왔다. 그 사람들이 오자 아이들이 다가가 즐겁게 노는 것이었다. 또 말랐던 나무가 살아나고, 꽃들이 활짝 피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이 행복해 했다. 그것을 지켜보던 자신도 행복해졌다고 한다.’

그 순간 잠에서 깬 우스타스의 마음속에 파울로 선교사가 떠올랐다. 신이 마을을 위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와 친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했다. 파울로 선교사는 그의 꿈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키 작은 사람은 누구냐고 우스타스에게 물었더니 나중에 찾아올 또 다른 사람이라고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키 작은 사람이 NGO 더멋진세상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우스타스의 꿈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

하심을 느꼈어요. 마을사람들 모두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NGO 더멋진세상이 있기 때문에

파울로 선교사는 본나바 마을에서 해야 할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다. 마을에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너무 많았다. 혼자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울로 선교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다. 그가 다시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움을 줄 누군가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도움의 손길이 바로 NGO 더멋진세상이다. 둘은 만나자마자 동역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NGO 더멋진세상의 진심에 감동을 받았다. 그들은 마을을 위해 무엇을 할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파울로 선교사는 더멋진세상에게 갈대로 만들어진 초가지붕의 케르발라 초등학교를 보여주었다. 갈대로 만들어진 학교에는 별레가 많았다.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힘들 정도였다. 파울로 선교사와 NGO 더멋진세상은 함께 학교를 둘러보며 도와줄 방법을 찾았다. 2년 후 멋진 학교가 건축되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이런 큰일은

NGO 더멋진세상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파울로 선교사와 NGO 더멋진세상의 활약은 그뿐만이 아니다. 언덕에 올라가 마을을 바라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다. 아이들이 마실 물을 얻기 위해 먼 길을 다녀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모습이 안타까워 이번에는 수도시설을 만들었다. 아이들이 더 이상 걱정 없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다.

“NGO 더멋진세상은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 위해 보내주신 단체 같아요. 함께 세상을 돕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NGO 더멋진세상은 늘 더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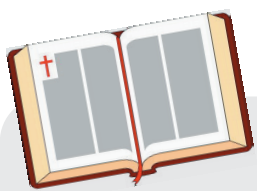
사역한다. 파울로 선교사도 그 부분이 가장 고맙다고 했다. 다른 단체들은 개인 의견을 참고만 하지 수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NGO 더멋진세상은 달랐다. 파울로 선교사의 의견을 존중해주었다. 소속은 달라도 본나바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였기 때문이다.

본나바 마을에서 사역하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려운 순간도 참 많았다. 그때마다 NGO 더멋진세상이 큰 힘이 되었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서로 손을 맞잡고 기도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었다.

파울로 선교사는 5년 동안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고국 브라질로 돌아간다. 본나바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쉽지만 걱정은 없다. NGO 더멋진세상이 있기 때문이다. 파울로 선교사는 최고의 파트너 NGO 더멋진세상에게 어려움을 장애로 보지 말고, 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보기를 당부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알아가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처한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그들을 깊이 이해하고, 지금처럼 사랑해주면 좋겠습니다. 본나바 마을사람들은 NGO 더멋진세상을 보며 사랑과 평화를 느낍니다. 나는 앞으로도 NGO 더멋진세상이 본나바 마을에 끊임없이 사랑과 평화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 파울로 선교사 가족. 왼쪽부터 파울로(Paulo) 선교사, 아들 미구엘(Miguel), 아내 루시(Luci).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1~11

“예수님이 영광스런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뤄가야 합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고, 가르쳐주신 교회가 실제로 나타난 모습이 사도행전입니다. 모든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대 문화로 되돌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를 통해 이뤄졌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시작한 조직이 아닙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의미도 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당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믿는 사람들을 사도, 형제, 제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도 후에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주변인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비꼬는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에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외부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안디옥에서만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단어로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주후 200년까지 믿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로 ‘나사렛 도당’이라고 일컬었습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독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은 주후 150년입니다. ‘폴리킵’이라는 교회지도자가 쓴 〈순교사회〉에 기독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독교라는 정형화된 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는 기독교, 교회,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들조차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당시 교회는 조직체라기보다는 유기체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동체였습니다. 틀이 잡히지 않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유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

사도행전적 교회는 ‘Liquid Church(유동체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믿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회적 지위, 재물, 조직이나 통신수단, 선전도구도 없었습니다. 아주 미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엎었습니다.

세상을 요동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모두 조직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움직이는 돈이 있습니다. 어떤 이념이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조직화된 체계도 없었고, 이름도 불분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사렛 도당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을 이 세상의 어떤 사회학자들이 해석할 수 있을까요. 3세기에 이르러 콘스탄틴 황제는 교회를 공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쩔 수 없어서 한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해서 공인한 것입니다. 교회가 세력화되고, 조직화되고, 세속적인 힘을 덧입음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은 문제지만 강력한 영향력으로 성장한 것 자체를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치적 목표가 실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열심히 사회운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 로마제국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로 되돌아간다면 한국사회가 뒤집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운동이나 사회이념운동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세력화가 아니라 영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세상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유동체적인 교회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유동적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한 분 빼고는 모두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익숙한 명칭과 익숙한 조직 등 모든 것들이 유동적 상태로 되돌아갈 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공동체

“데오빌로여,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기 시작하신 모든 것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후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1-2절).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가 쓴 것이 아닙니다. 두 편 모두 누가가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속편입니다. 사도행전은 학위논문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대중들에게 발표할 역사서를 쓴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로마의 귀족을 전도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사도들을 통해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

동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두 구절에 사도행전적 교회의 첫 번째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행전입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서 임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복음서는 훌륭하게 살다가 죽은 위인의 과거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일어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위인이라고 해도 죽으면 영향력이 끝납니다. 종교가 세워져서 그 영향력이 계속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영향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 이후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은 아직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9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부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니 승천을 믿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징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사건을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5장에 하나님이 에녹을 홀연히 데려 가셨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적은 꼭 선례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믿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선례를 남겨 놓았다고 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

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4-5절).

사도행전적 교회는 성령공동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유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 년에 세 번씩 중요한 절기 때마다 모여 의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에 고난 받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이 성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과 예수님을 연결시키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이사가 말씀을 성취하면서 유월절 어린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이 끝나면 집을 써서 집으로 돌아가기 마련인데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저기 나타나셔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40일이 지난 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사시고, 고난 받고,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성령님이 구원의 증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서들이 공통적으로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도행전적 교회의 두 번째 정체성의 시작이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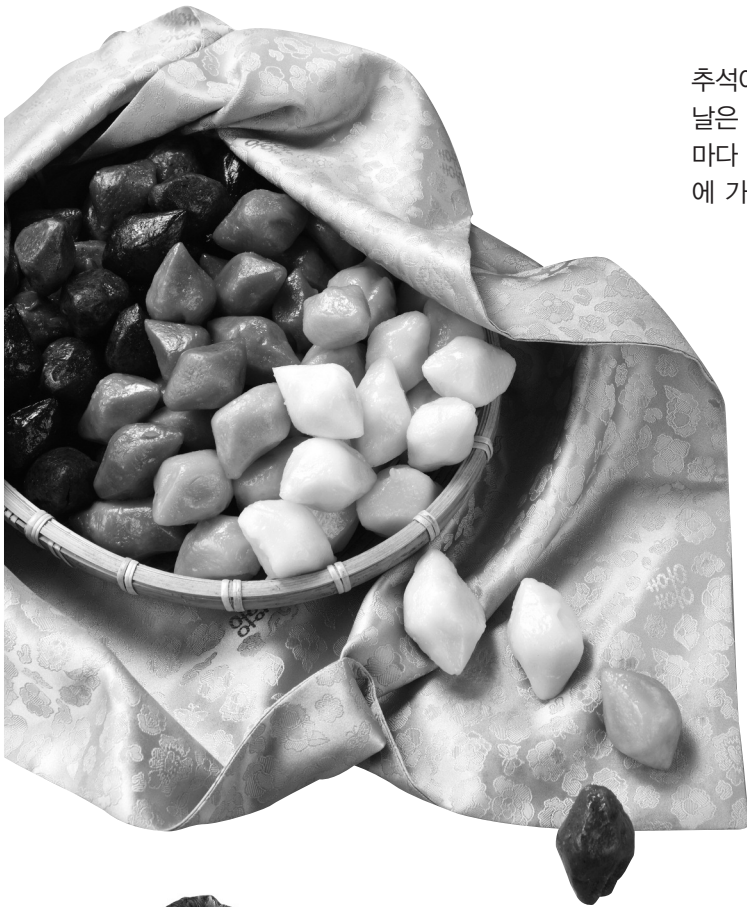
예수님을 믿지만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증인으로써의 삶을 삽니다. 성령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확신 조건입니다.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적 교회의 이론이 됩니다. 물세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관습과 인습, 인간적인 철학, 세속적인 가치관과 전통문화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13면에 계속)

제사(祭祀)와
추도예배(追悼禮拜)

크리스천으로서 명절을



이기진 목사(강남C공동체)

한국 천주교나 개신교 초기 역사는 제사문제를 빼놓고는 이야기하기 어렵다. 오랜 시간 ‘추양계 효(追養繼孝)’, 죽은 이를 계속 공양함으로써 효를 이어간다는 제사문화의 영향 아래 놓여 있던 한국 사람들은 한 순간 그 모든 것을 예배라는 이름으로 대체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많은 희생과 수고가 불가피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 진산(珍山) 사건과 개신교 초기 입교자 교육과정에 나타나 있다.

신유박해를 부른 폐제분주

18세기 말 조선은 중국과 활발하게 교류했다. 당시 중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던 예수회 선교사들의 포교로 자연스럽게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일게 된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정조(正祖)의 비호 아래 천주교가 뿌리를 내리려던 찰나 대대적 박해를 불러온 사건이 발생한다. 1791년 진산(珍山, 현 충남 금산군 진산면)의 윤지충과 권상연이 제사를 폐지하고 신주를 불태운 폐제분주(廢祭焚主) 사건이 발생했다. 온 조선을 한 순간에 큰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초기 천주교 신자였던 이들은 ‘조선 땅에 만연한 제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당시 중국에서 북경교회를 관할하던 구베아 주교에게 질문하였다. 주교는 교황 베네딕토 14세의 칙서(Ex quo)와 클레멘스 2세의 칙서(Ex illa die)를 인용해 중국식예배는 금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선 천주교에 ‘제사금지령’을

추석이 일주일 앞이다. 명절을 앞두고 벌써 마음이 설렌다. 그런데 명절이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날은 아닌 것 같다. 특히 홀로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이 그렇다. 차례를 지내나 마느나는 문제로 해마다 시끄럽다. 어떻게 하면 가족들과 갈등하지 않고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추석이 주일인데 시댁에 가야할까 말아야할까? 절을 해도 될까? 그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풀어냈다.

/ 편집자주

대교장을 지낸 마펫(Samuel A. Moffett) 목사는 신자를 원입교인과 세례교인으로 나누었다. 특히 처음 입교하여 3개월 간 교회의 집중적인 교육을 받는 원입교인에 대해서는 ‘우상 숭배로서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고, 성수주일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축첩(蓄妾)하지 않으며, 음주와 거짓말과 도둑질 및 잡기와 간음 등 그간의 악습을 완전히 일소하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할 것’을 서약한 이후에 세례교인이 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았다. 가장 큰 여론은 초기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발상이며, 조상 제사의 근본 의미는 동양의 효 사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개신교의 우상숭배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제사(祭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과 양립하여 논란과 박해의 빌미가 된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조선은 개국과 함께 기존 불교의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시대의 통치를 뒷받침할 정신적 배경이 필요했다. 유교는 이러한 당시 조정의 필요에 부합하는 가치였다. 유교는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으며 점차 정치철학인 동사에 생활윤리로 자리 잡게 되었다. 특히 유교의 가치는 ‘효(孝)를 모든 덕목의 뿌리라고 보았다. 그래서 ‘충신은 효자의 집에서 구한다’ 또는 ‘효자의 가문에서 충신이 난다’고 할 정도로 효의 가치를 중요시하였다. 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에 대한 효’라고 가르쳤다. 일반적인 인간관계를 인륜(人倫)이라 한 반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천륜(天倫)이라 부르면서 무엇도 끊을 수 없음을 가르쳤다. 자연스럽게 부모는 살아서 정성을 다해 섬기고, 장례는 예(禮)를 다하고, 죽은 자(死者) 섬기기를 산 사람처럼 하는 것이 모든 효의 가장 근본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따라서 제사는 죽음으로 단절된 부모와의 관계를 지속하는 상징적이고 실천적인 섬김의 현상이었다.

죽은 자를 섬기는 제사에 담긴 의미가 효의 실천적 표현이 전부일까? 세계의 모든 민족과 원시 종교의 근간에는 죽은 자의 영을 섬기는 제의(Ancestor Worship)가 나타나는데 이는 제사가 단순한 효의 실천을 넘어서는 종교적, 신앙적 차원의 행위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제사는 민족의 독특한 신(神)관념, 세계관, 삶과 죽음에 대한 사생(死生)관이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유교에서 조상(祖上)은 생명의 수여자이며, 오늘 내가 있도록 한 근원자이다. 조상은 죽어도 형체가 없을 뿐이지 그대로 살아 있는(Living) 존재이며, 죽은 뒤에는 제사를 통해 영적인 존재로 승격해 신격화(神格化)된다고 보았다. 한 종교학자는 이러한 조상 제사를 ‘죽었으나 살아 있는 노인(A Living man who is dead)’을 섬기는

는 현상이며, 이러한 제사의 이면에는 자신들도 역시 미래에 지속적으로 후손들에게 살아있는 존재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기대가 숨어있다. 한 마디로 제사는 현재 나의 존재를 과거와의 대화 속에서 발견하게 해 주며, 나아가 미래의 모습을 예측하게 해주는 현상이다. 따라서 유교로부터 비롯된 제사는 죽은 자의 영을 앞에 두고 산 자들이 제사장이 되는 현상이며, 효의 실천적 현장을 넘어서는 우리 민족의 ‘공동예배’(Corporate Worship)의 장이라고 불리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효(孝)’의 표현으로서 제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에는 엄격한 의미의 유교적 제사와 동일한 개념이나 추도(追悼)의 본문이 등장하지 않는다. 단지 부모 섬김과 관련해 십계명 가운데 제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공경을 의미하는 히브리어는 ‘카베드’(Kabbed)이며, 무겁다는 의미이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반드시 지켜야 할 무게 있는 명령임을 의미한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이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의미한다. 십계명을 기록한 모세는 신명기에서 ‘죽은 자를 위한 제사’를 금지하고 있다(신 14:1, 26:14). 물론 이는 당시 가나안의 이교 제사 행위를 금지한 것이지만, 부모공경의 명령은 죽은 조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부모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다. 무엇보다 제5계명의 후반부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신 5:16)고 말씀하시면서, 부모 공경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의지가 담긴 명령임을 선포하고 있다. 칼 바르트(Karl Barth)는 ‘부모는 하나님 창조 사역을 이어가고 대항하여 자녀를 생산하고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할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자녀의 공경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엡 6:1)고 권면하면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아래 드러지는 효가 진실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성경은 효(孝)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공경은 살아계신 동안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어야 함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절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 성묘하고 차례를 지내는 성도들이 있을 것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같을지언만 여전히 고향집에 차려진 제사상 앞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간 고민되는 문제가 아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일단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혹 제사가 드러지

선포하였다. 이 결정은 오랜 유교전통에 젖어 있던 조선 사회 모든 계층의 심장을 찌르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다. 초기 천주교에 참여했던 관료들은 이 명령을 따르지 않기 위해 교회를 떠났다. 반대로 양반의 특권을 포기하고 교회에 남은 이들도 혼란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일에 주동이 된 윤지충은 체포되어 이렇게 진술하였다.

“천주를 큰 부모로 여기는 이상 천주의 명을 따르지 않는 것은 결코 공경하는 바른 뜻이 못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올리는 것도 천주교에서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천주의 가르침을 위한 것일 뿐으로서 나라의 법을 범한 일은 아닌 듯합니다.”

결국 진산사건을 계기로 천주교 신자들은 부모도 인중에 없는 불효자, 천륜을 저버린 짐승 같은 무리로 여겨지게 되었다. 1801년 순조 즉위와 함께 섭정을 하게 된 정순대비(貞純大妃)는 사교(邪敎), 서교(西敎)를 근절할 것을 명하면서 신유박해의 서막이 열리게 되었다. 결국 조상 제사 거부 이후 약 100년간 이어진 천주교 박해의 주요 구실과 이유가 되었다.

개신교, 1904년 제사 대신 추도식 선언

기독교는 천주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게 한국에 뿌리내렸다. 초기 선교사들은 제사문제에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공인, 타협, 반대라는 세 가지 입장을 놓고 논의한 끝에 개신교는 조상제사 반대를 공식적인 입장으로 선택하였다. 1904년에는 공식적으로 ‘조선교회는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를 다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엄숙하게 자식의 도리를 다해 장례를 치르되 제사는 드리지 않으며 대신 추도식으로 그 예(禮)를 대치한다’고 선언하였다. 심지어 입교의 주요 서약 가운데 조상제사 거부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1800년 입국하여 평양장로교신학교 초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내기

예의 표현과 이상숭배 차이 기억 ... 하나님을 향한 감사돼야
절 할 필요 없지만, 마음 표현이라면 문제시 할 필요도 없어



더라도 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이면에는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는 것이 이상숭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이나 손으로 만든 어떤 유형의 것들이나 자연물 나아가 죽은 자에 대해서 절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며 우상의 노예로 전락하는 행위이다. 그렇다고 절하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구약성경에서도 사람이 사람에게 절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을 방문한 천사에게 절하였고(창 19:1),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였으며(창 42:6),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절했다(출 18:7).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분명 맹목적인 비인격적 행위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전인적 존경을 담아 절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때로는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경동교회(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발간한 <기독교인의 가정의례 지침>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행위’란 유한한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높이고 그 앞에서 인간의 모든 것을 맹목적으로 복종시키는 잘못된 행위로서 인간을 비인간화시키고 우상의 노예로 만들어 버린다. 그러한 이상 숭배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게 절하는 몸짓은 고인에 대한 조, 추모, 추모의 심정을 말없이 전인적(全人的) 몸짓에 담아 표현하는 전통적인 예법일 뿐이다.”라고 밝히면서 절하는 행위가 이상 숭배와 관련 없는 전통적인 표현의 일부임을 밝히고 있다. 이미 기독교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는 제사상을 차려 굳이 절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족과 친척 가운데 때로는 절하는 몸짓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굳이 문제시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추도예배(追悼禮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제사(祭祀)를 대신 하는 것이 추도

예배(追悼禮拜)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제사를 교리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교인들이 오랜 시간 만연한 유교 제사 문화에서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도 없었다. 그런 현실적 상황에서 세계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한국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추도예배(追悼禮拜)이다. 기독교 역사 안에서 추도(追悼)와 관련된 몇몇 기록들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추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AD 156년 순교한 폴리캡(Martyr Polycap)을 위해 매년 2월 23일 추도식을 거행한 것이다. 북아프리카 주교였던 터툴리안(Tertulian) 당시에는 죽은 기독교인의 기일을 해마다 추모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러한 교부들의 전통에서 발전한 것이 현재 천주교에서 드리는 죽은 자를 위한 ‘위령(慰靈)기도’이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는 추도예배의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은 거의 전무하다.

그렇다면 빈약한 성경적 근거 위에서 한국 교회의 추도예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보편적으로 종교는 이미 그 종교가 속해 있는 지역의 문화를 포함하고 있다.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그리스도와 문화>에서 ‘문화란 사회의 구성원이 전해 받아 전수해온 사회적 유산 이기에 인간의 삶은 언제나 문화적이다. 또한 문화는 사람의 정신과 손으로 빚어진 산물이며 작품이라는 점에서 종교(宗教)도 그 결과물 중의 하나이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문화와 종교는 서로 충돌하거나 대립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그 관계를 ‘문화는 종교의 틀을 형성해 주며,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라고 정의하였다. 비록 유교 제사의 문화 가운데 기독교가 뿌리를 내렸지만, 한국교회는 이제 제사를 끌어안고 오히려 넘어서는 ‘추도예배’(追悼禮拜)를 통해 ‘문화성육화(Inculturatio)’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예배 안에서 지역의 문화의 틀이 수용되고, 고유한 사상과

언어를 통해 예배드림으로써 예배와 자신들의 문화의 동일시 경험을 하게 된다. 이렇게 문화가 예배로 전이된 대표적인 한국교회 유산이 현재 전통 절기에 드러지는 ‘추도예배(追悼禮拜)’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추도예배(追悼禮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연스러운 필요에 의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보편적인 명절에 배로 드러지는 추도예배를 어떠한 자세로 드러야 바람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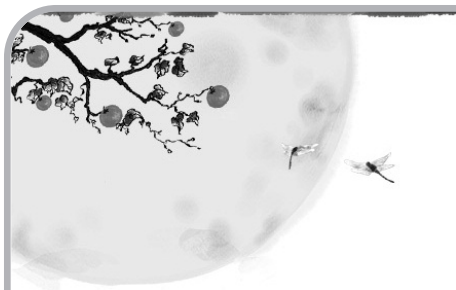
우선 추도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효의 표현으로 드러진 제사에는 원시종교에서 비롯된 죽음과 삶에 대한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효의 표현을 넘어서서 죽은 자의 영혼 앞에 드러지는 미신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반면에 추도예배는 이미 죽은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기억하되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러지는 것이다.

추도예배에서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는 후손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고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수고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고인이 평소 소중하게 여기셨던 가치를 후손들이 다시 돌아보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지를 돌아보고 삶의 내용과 태도를 바르게 가다듬는 계기로 삼는 것이 추도예배에 임하는 올바른 태도로 볼 수 있다. 온누리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예식서에서는 추도예배를 ‘고인을 기념하여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을 추도예배라고 한다. 추도예배에서는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

를 회상하는 가운데 교훈을 받고 새로운 결심이 남은 유족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족과 친지들 간의 화목과 우의를 갈게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하면서 제사와는 다른 분명한 신앙적 목적을 가진 자리가 추도예배가 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실제적인 제안을 몇 가지 더한다면 명절과 주일이 겹치면 추도예배 날을 바꾸는 것이 좋다. 예배 순서를 위한 것 이외에 별도로 준비할 것은 없지만 고인의 사진, 약력, 생전에 녹음이 되어 있는 육성 등은 가족들의 마음을 모으는데 좋은 장치들이 될 것이다. 예배 후에 가족들이 음식을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제사상차림(진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소하게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효라고 하는 유교 윤리가 작용한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한국인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모님과 조상에게 마치 살아계신 때와 동일한 존경의 마음을 예를 갖추어 표현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다. 반대로 제사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윤리적 실천과 종교적 미신 사이에서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명절을 맞아 제사를 드리고, 절을 하고, 차례를 지내는 현장에서 성도들은 예(禮)의 표현과 이상숭배의 차이를 기억해야 한다. 나아가 각각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기독교적 가치와 잘 부합하는지 돌아보고 궁극적으로 부모와 조상,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올바른 명절을 보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자리가 성전의 자리이듯이, 명절을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의 시간과 공간이 우리 앞선 부모와 조상들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는 풍성한 감사로 채워지기를 바란다.



추석 감사예배 및 추모예배



서재범 목사

추 · 석 · 감 · 사 · 예 · 배

* 가정 예배 요령

- 1) 제사는 죽은 영혼에 대한 것이지만 추모예배는 고인을 추모하며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본분을 지켜 제사상에 절하는 것을 삼가야 합니다.
- 2) 감사예배의 경우 가족들이 둘러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추모예배의 경우 고인의 사진, 고인이 쓰던 성경, 찬송가 또는 유

품을 올려놓고 꽃으로 주변을 장식할 수 있습니다. 향이나 촛불 또는 지방을 쓰거나 음식상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 3) 미리 찬송가를 틀어 놓음으로써 찬송과 기도 가운데 경건하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 4) 예배 후 함께 식사를 나누며 서로 덕담과 사랑의 교제로 이어가면 좋습니다. 또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방문한다면 더욱 뜻 깊은 명절이 될 것입니다.

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과 땅의 신인 하나님과 조상에 대한 효의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석은 곧 수장절

첫 추수에 대한 감사의 성경적 근원은 곡물 추수와 관련된 가인과 아벨의 제사(창 4:3~4)이며, 구약의 ‘수장(收藏)절’입니다. 이는 유대달력으로 기율절인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양력으로는 11월 중순경) 7일 동안 계속해서 나뭇가지로 만든 초막 속에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레 23:34, 42)였는데, 모든 농사를 마치고 각종 수확물을 창고에 잘 저장한 후 그것을 기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가 되면 신분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모여 잔치를 벌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신 16:14-15). “너와 네 아들딸들과 네 남종들과 네 여종들과 네 성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고아들과 과부들과 함께 기뻐하라”(신 16:14).

기업을 얻지 못한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 객처럼 신분이 낮고 천하다고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즐거워하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낙심 속에서 감사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가 어떤 상황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구원의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박국 3장 17~19절의 내용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절망적일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낙망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비참한 현실을 농산물 수확량의 감소와 가축의 상실 등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현실은 기근이나 불의한 사람들로부터 빼앗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및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나무이며 양과 소는 농업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가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영과 평화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들 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에게 가축에 사라졌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는 주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복과 공의의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라는 명령 앞에 우리 모두 희망을 선포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을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한가위는 말 그대로 ‘가을의 한 가운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중추(仲秋)절).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

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며 수확한 햇곡식으로 천지신명께 감사를 드리는 가장 오래된 민속명절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추수에 대한 감사를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리고 조상이 숭배의 대상

추 · 모 · 예 · 배

고인을 기념하여 애도하고 추모하는 예배를 추모예배라고 합니다. 추모예배는 고인의 믿음의 발자취를 더듬고 그의 유지를 회상하는 가운데 교훈을 받고 유족과 친지들 간에 화목과 우의를 더 깊게 갖게 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개식사	인도자
오늘 우리는 고(故) 000님을 추모하며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리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벤전 1:3-5 다같이
찬송	새435장(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기도	가족 중에서
성경봉독	가족 중에서
설교	살아있는 소망 설교자
찬송	새438장(내 영혼이 은총 입어) 다같이
추모하는 이야기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산 소망

고인이 우리의 곁을 떠나 하나님께로 가신 지 벌써 00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추모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고인의 살아생전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여정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인해 우리들을 거듭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산 소망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것들은 유한하고 썩는 것이며 쇠한다는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인간적 소망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래서 우리는 열정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소망은 보장받을 수 없고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산 소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의 소망, 인간적 소망을 좌절시키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했을 때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라는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한다. “아, 난 이제 끝이다”라고 쉽게 절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요일 2:17).

둘째, 산 소망은 우리 현재의 삶이 영원한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현재의 삶이 영원한 소망과 이어져 있다면 그는 방자히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죄도 남고 우리 영혼도 영원히 거한다면 하루 하루 우리의 결정과 판단도 신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일에 대해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갈 6:8). 우리의 오늘은 영원한 영향을 미칩니다. 가장 가치 있는 투자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가도 중요하고 예술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

고 무구한 세월이 흐르면 사라질지 몰라도 사람의 영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산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자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산 소망을 지니고 나아가는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과 대결하여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합니다. 5절에 나타난 ‘구원’은 ‘위험에서 구한다’, ‘병을 낫게 한다’는 의미가 있고 또 ‘정죄’나, ‘병마와 죄악의 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날에 바랄 수 있는 것은 이런 유의 구원입니다.

이러한 산 소망을 목표로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 소망이 중요하지 않다면 ‘나는 과연 어떤 소망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 아니라면 어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헛된 인간적 소망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산 소망은 탁월한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 있게 하며, 인내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도움을 얻게 하며, 그를 끝까지 하늘나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특집 온누리 선교 30주년

1. 온누리 선교 30주년 행사 이렇게 진행된다
2. 온누리 선교 유관부서의 역할 ‘융합선교’
3. 또 하나의 선교 ‘보내는 선교사’
4. 나는 선교사입니다

선교헌금, 중보기도, 홈스테이, 재능기부로 선교 후원

2천 명의 선교사와 1만 명의 사역자를 파송한다는 ‘2천/1만 비전’이 선포된 이래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모두 선교사가 되었다.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금까지 72개국에 1,78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현재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는 855명이다. 그들 뒤에는 2만 7천여 명의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 어떤 이는 선교헌금으로, 어떤 이는 중보기도로, 어떤 이는 고국에 온 선교사가 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만이 아니다. 어떤 이는 재능기부로, 또 어떤 이는 CGNTV 후원자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후원사역부

보내는 선교사의 선봉은 2000선교 본부 후원사역부가 맡고 있다. 지난해 1월 발족한 후원사역부는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150여 명으로 구성된 선교사 후원모임이다. 후원사역부에서는 기도책자〈온누리에서 온 편지〉를 발간하고 있다.〈온누리에서 온 편지〉를 성도들에게 배포해 선교사를 위해 중보기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격월로 발간되는〈온누리에서 온 편지〉에는 각 지역별(국내, 동아시아, 남아시아, 중동, 유라시아, 아프리카, 미주오세아니아) 소식과 선교사들의 기도제목 등이 담겨 있다. 읽을거리도 풍성하다. 선교지 기독교 현황과 문화, 선교 역사, 선교사의 편지와 기도제목, 선교단체 안내 등 알짜배기 정보들이 가득하다. 선교사들의 근황도 알려준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오전 10시 두란노서원 202호에서 기도모임을 하고 있다.

후원사역부 소속 최현주 집사는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와 선교지를 변화시킨다고 믿고 있다”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기도책자〈온누리에서 온 편지〉제작에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의: 후원사역부 070-4949-7882

중보기도회와 목요선교집회

두란노해외선교회(TIM)에서는 정기적으로 선교사들을 위한 중보기도회를 열고 있다. 중보기

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신관 301호에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 아론기도실과 홀기도실에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다.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 황준서 목사는 “누군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겠나”면서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자숙 집사(TIM기도회 팀장)는 “선교사를 위한 중보기도회 멤버인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했다.

목요선교집회도 빼놓을 수 없다. 이름 그대로 선교와 선교사에, 선교와 선교에 의한, 선교와 선교사를 위한 예배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홈스테이와 CGNTV 후원

홍경신, 이대경 부부(일본어예배)는 지난해 10월 방 3개짜리 집으로 이사했다. 그들은 굳이 넓은 집이 필요 없는 결혼 4년차 신혼부부다. 그런데도 이 부부가 큰 집을 구한 이유는 고국에 온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선교를 가지 못하기에 선교사님들을 돕는 선교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 선교사님들이 편히 쉬 수 있었으면 좋겠



▲선교사에게 잠시나마 편한 쉼터를 제공하고 싶다는 홍경신, 이대경 부부.
▶2000선교 후원사역부에서 만드는 기도책자〈온누리에서 온 편지〉

어요.”

그들은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더 많은 선교사들이 될 수 있는 집을 제공하기 위해 방이 15개 있는 집을 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들의 헌신이 눈부시다. 10월에 있을 선교대회에 참가하는 선교

사들 중 17가정이 홍경신, 이대경 부부처럼 홈스테이를 실시하는 성도들의 집을 이용할 예정이다. CGNTV 후원자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도 있다. CGNTV 정기후원자는 2만 4천 명이다.



☞ 목회칼럼 강일영 목사(2000선교 본부)

선교는 보냄 받은 것이며, 보내는 것이다

온누리교회의 귀한 프로그램 중에 와이미션(Why Mission?)이 있다. 타교회에서도 요청할 만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 와이미션 수료 간증문을 읽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오해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스쿨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나가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특히 젊은 사절 헌신이 나서원한 성도들이 와이미션 과정에 참가하는 것을 어려워한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는 시기와 부르심에 따라 국내에서 사역할 수도, 해외에서 사역할 수도 있다. 전임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일터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다. 각자의 부르심과 헌신의 모양은 달라도 모두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와이미션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돌아보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심고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선교적 삶이라고 선언한다.

최근 몇 년까지만 해도 많은 교회들이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지가 교회 주보에 자랑스럽게 올라왔다. 선교사들을 어떻게 섬기고 있으며, 성도들의 삶이 선교적 삶으로 도전되는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보냄 받아 가는 선교사가 특별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던 시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바다 건너 다른 나라에 있는 선교사를 만나기가 어렵지 않다. SNS 등을 통해 소식을 자유롭게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선교사의 삶이 그렇게 특별하지 않다는 것에 적잖이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고, 이웃리치 같은 필요한 방문과 섬김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선교를 한때의 유행처럼 타올랐다가 사그라지는 불꽃으로 여기

기도 한다. 선교를 가는 것으로만 여기기 때문이다. 선교는 보냄 받은 것이며 보내는 것이다. 안디옥교회가 초대교회 첫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것처럼 스스로 가는 선교가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보냄을 받는 것이다.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선교다.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롬 10:13-15)라고 외쳤다. 보냄을 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온누리교회에는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다. 보냄 받은 선교사(수적 1,785명, 사역 중 855명)들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2만 7천여의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은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또 각 공동체별, 지역별,

캠퍼스별로 무릎선교사들이 있다. 그들도 보내는 선교사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드리고, 복음이 필요한 열방으로 선교사를 보내는 통로가 되기로 작정했다면 누구나 보내는 선교사다. 온누리교회 창립 30주년이다. 선교 30주년이기도 하다. 10월에 ‘온누리 선교 30주년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파송 받은 지 5년 이상 된 온누리교회 선교사 200여 명이 서울에 온다. 어찌 그분들만 선교의 노고를 감당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원해준 온누리교회 모든 보내는 선교사들의 노고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선교대회는 보냄 받은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모두를 위한 날이다. 이번 선교대회는 모두가 하나 되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잔치가 될 것이다. 보냄 받은 자와 보내는 자,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한다.

예산집행 모범 사례로 선정된 ‘동대문중랑공동체’

상반기 감사 보고 ... 계획대로 예산 운영한 유일한 공동체

당회운영위원회 2015년 상반기 감사 결과보고에서 동대문중랑공동체가 모범적인 예산 운영사례로 선정돼 칭찬을 듬뿍 받았다. 한갑수 장로(감사위원)는 “동대문중랑공동체는 2015년 상반기 감사를 받은 45개 성인공동체 중에서 유일하게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한 공동체”라며 모범적인 예산 운영 사례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형 장로(감사위원)도 “다른 공동체에 귀감이 되기 마땅하다”고 평했다. 얼마나 모범적으로 예산을 운영했기에 감사위원들이 이토록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할까. 동대문중랑공동체 담당 이재정 목사, 신현승 장로, 최용일 총무, 장석원 회계집사에게 그 이유를 물었다.

“별 것 아닌데...” 당연한 것을 했을 뿐이라고 인터뷰를 사절하는 그들을 설득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동대문중랑공동체 이재정 목사, 최용일 총무, 신현승 장로, 장석원 회계집사(왼쪽부터)
▶장석원 회계집사가 만든 지난해 재정결산서.

“칭찬을 받은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난 13일 만난 동대문중랑공동체 리더십들의 공통적인 답변이다. 그들의 표정도 얼떨떨하다. “아마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장석원 회계집사가 두 권의 책자를 건넸다. 동대문중랑공동체의 2013년과 2014년 재정결산서였다. 스무 장 남짓 되는 얇은 책자였다. 책자를 펼치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동대문중랑공동체의 1년 예산흐름과 집행, 운영방식을 한 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계획, 원칙, 수순 밝아 집행한 눈에 공동체 1년 흐름을 볼 수 있다

책자에는 해당년도 재정결산서, 재정결산 집행율, 재정예산서, 수입/지출 세부사항, 상하반기 개강·종강예배 결산보고서, 국내 아웃리치 결산서, 리트릿 결산서 등이 나열되어 있었다. 순환금이 얼마 건졌는지, 교회 현금으로 얼마를 지출했는지, 심방과 장례로 쓴 비용이 얼마가 나갔는지, 외국인노동자 지원금과 다락방지원금은 얼마를 지출했는지가 적혀 있었다. 심지어 은행수수료 4000원 발생한 것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다. 수입과 지출이 항목별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동대문중랑공동체 예산 운영 방식을 분석했다.

먼저 1년 예산 범위와 항목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지출할 때는 총무-대표장로-담당목사 결재를 거쳐 회계집사가 집행하고 있었다. 계획에 맞게 예산을 운영하고 원칙과 수순을 밝아 집행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돈을 주고받을 때는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송금을 원칙으로 했다. 내역을 남기는 것이다. 예산과 관련된 그 어떤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수입은 이월금, 순환금, 공동체헌금, 교회지원금, 은행이자로 나뉘었다. 지출은 교회헌금, 장례심방비, 축하행사비, 외국인노동자 지원금, 국내 아웃리치 지원금, 다락방 지원금, 사회선교 지원금, 리더십양육지원금, 예비비, 은행수수료 등으로 세분화했다. 지출금액도 세부내용을 정했다. 예를 들어 심방비(환우, 개업)는 선물비용으로 1회당 15000원으로 책정해 놓았다. 물론 이 금액을 넘을 수 있지만 정한 항목과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하고 있었다. 2개월마다 집행율을 체크하고 있었다. 동대문중랑공동체 재정결산서를 보면 예산 흐름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 해 동안 동대문중랑공동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한 눈에 알 수 있다. 온누리M센터 지원을 2번 했고, 국내 아웃리치 답사를 두 번 다녀왔고, 순환금의 30%를 교회 현금으로 지출했고, 공동체 내 장례가 6번 발생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다.

산 운영 틀을 마련하자 두 가지 유익이 있었다. 첫째는 공동체 재정을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잡음을 사전에 차단했다. 두 번째는 다음 리더십들에게 살아있는 교재를 줄 수 있다는 점이다. 한 해 동안 공동체가 한 사역, 예산집행 내역 등을 이보다 더 쉽게 알려 줄 수 없기 때문이다.

시행착오도 있었다. 회계 업무를 담당한 장 집사는 더 힘들었다. 그는 지금껏 용돈기입장, 금전출납부 한 번 써 본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회계를 맡긴 했는데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돈이 나가고 있는데 맞지 않고 사라진 1,000원을 찾기 위해 밤샘 적도 있었어요.”

쉽지 않았지만 장 집사는 누구보다 뿌듯해 했다. “교회가 투명하지 않은 재정 운영으로 세상으로부터 욕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투명하고, 누구나 알아보기 쉽게 예산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공동체 1년 예산이 2500만 원 정도인데 저는 2500억 원이라고 생각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옆에서 신현승 장로가 한마디 거들었다.

“필요하다면 다른 공동체에도 우리의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하고 싶어요.”

신약성경에는 믿음과 관련된 구절 215개, 구원에 관한 구절 218개가 나온다. 금전 및 재정의 청지기적 책임에 대해 다룬 구절은 무려 208개나 된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만큼 돈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다. 모범적인 재정 운영을 하고 있는 동대문중랑공동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청지기가 아닐까.



칼럼 신현승 장로

공동체는 함께 자라는 곳이다

온누리신문사로부터 우리 공동체가 예산운영 모범사례로 선정됐다며 인터뷰 요청을 받았을 때 무엇을 잘한 것인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회계 시스템을 잘 만들어보려고 노력했던 공동체 리더십들의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동대문중랑공동체는 매년 매뉴얼화 된 자료를 바탕으로 운영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한다. 1년을 마무리하면서 회계보고서 책자도 만든다. 회계 보고서 한 권을 보면 재정의 흐름을 알 수 있다. 또 공동체 소속 성도들에게 개강, 종강예배, 순장순례회 등에서 회계보고를 하고 있다. 성도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공개한다.

공동체 안에서 회계의 기능이 무엇일까? 공

동체 목표 방향에 맞춰 필요한 사역에 필요한 재정을 집행하고, 성도들에게 예산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절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고, 기록을 정확하게 남겨 재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를 사전에 막는 것도 마찬가지다. 공동체가 목표와 사역에 집중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공동체 회계 운영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동체는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서로 세워주고, 함께 자라는 곳이다. 교회의 목표 방향에 따라 순모임과 사역에 참여하고, 공동체의 필요를 관찰하고, 해결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 공동체는 지난 몇 년 동안 다음 리더십 양육에 대해 관심을 갖고 논의해왔다. 온누리 영성을 이어받은 리더

십 양육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잘 양육된 다음 리더십들이 공동체에 정착하고, 그들이 공동체를 잘 이끌도록 하는 방안이 주요 관심사다. 3년 전 OBC(Onnuri Bible Club) 과정이 공동체에 들어왔다. 우리는 OBC과정에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 일을 접목하기로 했다.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7080 모임’이다. 7080은 70년대와 80년대 생을 뜻한다. 70-80년대 출생한 지체들을 대상으로 OBC를 개설했다. 1박2일 코스를 만들어 야외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했다. 7주 동안의 OBC 과정을 통해 비슷한 연령대의 사람들끼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도록 했다. 7080 모임에는 조장 4명, 참석인원 12명이 참석한다. 적은 인원들이 모여

긍정적인 결과를 이뤄냈다. 젊은 사람들이 공동체 행사와 사역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된 것이다. 예배 봉사와 주차 봉사에도 전에 비해 많은 젊은 지체들이 참석하고 있다. 이런 행사를 하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공동체가 세대별로 분리되거나 세대별로 조직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공동체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다.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지체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한다.

재미있는 선교지 이야기

필리핀의
대가족 문화레비 목사와 가족
(온누리M미션)

필리핀 문화에서는 가족을 매우 중시한다. 어디나 그러겠지만 필리핀 사람들은 기본적인 사회 구성원인 가족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필리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부양을 위해서다. 그들은 타국에서 고된 노동과 향수병으로 아무리 힘들더라도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한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필리핀의 가족문화도 한국과 비슷하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들은 아버지를 ‘가정의 기둥’이라고 부른다. 어머니는 자녀들의 성장과 가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들은 어머니를 ‘가정의 빛’이라고 부른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정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다. 그들은 어머니를 부드럽고 온화한 분이라 표현하고 아버지는 강하고 엄격한 분이라고 표현한다.

필리핀 가족들은 굉장히 친하다. 또한 필리핀에서는 대가족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 이유는 필리핀 부모들은 자녀들이 분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 조부모와 부모, 자녀들이 함께 산다. 필리핀 어르신들은 자녀와 손주들과 살기를 원한다. 그들은 가족이 함께 사는 것에 큰 의미를 둔다. 필리핀과 한국은 어른을 공경하는 문화도 매우 비슷하다. 그들은 어른을 공경하는 방법을 ‘포’와 ‘오포’라는 단어로 표현한다. 이것은 한국의 존댓말과 흡사하다. 어른들을 존경하는 표현으로 존댓말을 사용한다.

필리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손윗사람이 동생들에게 존경받기를 기대한다.

필리핀 사람들이 분가하지 않는 이유

“파그마마노”

어르신들에게 공경을 표현하는 말이다. 한국의 세배와 흡사하다. 그들은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마노 포”라고 인사한다. 그러면서 어른의 손과 자신의 이마를 맞댄다. 어른들은 자녀들에게 “신의 자비와 은혜가 넘치길 바란다”고 말하며 인사를 받아준다.

또한 필리핀 가족들은 다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것은 축복을 의미한다. 필리핀 크리스천 가정들은 보통 잠들기 전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아버지가 대표기도를 하고 진행한다.

필리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이상 분가를 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원해도 부모가 허락해줘야 가능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사정으로 결혼 후에도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분가를 잘 하지 않는 편이다. 필리핀 사람들이 결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 어른을 공경하는 의미를 담은 필리핀의 인사 ‘파그마마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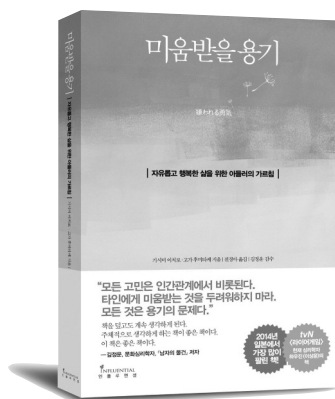
▲ 필리핀에 계시는 조부모 생신때 모인 가족들.

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 중 하나도 부모를 돌보아야 하는 의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필리핀 노동자들은 직장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

고 있다. 기회가 된다면 필리핀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해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들을 진심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고 느낄 것이다.



목회칼럼 박성은 목사(인천 온누리교회 차세대)



올해 상반기 베스트셀러 <미움 받을 용기>라는 책을 읽었다. 한 눈에 들어오는 독특한 제목이 내 시선을 이끌었다. 사랑받고, 행복하게 살기에도 부족한 시간에 미움 받을 용기를 내라니. 무슨 말일까.

이 책의 저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심리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이름의 작가다. 사람들이 심리학 이론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

일까. 우리는 네트워크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수많은 사람과 교류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빠른 속도로 공유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수없이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관계의 홍수가 우리의 갈굼함을 채워주지는 못한다. 관계가 많아지고, 깊어질수록 관계로 인한 어려움만 더 커지기 마련이다. 아들러는 인간관계 속에서 타인과 잘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을 제시했다.

고향을 떠나 새로 전학 온 한 여중생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자. 여중생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 SNS에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SNS에 ‘좋아요’가 늘고 메시지에 대한 ‘공유’가 늘어나면서 타인에게 자신이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더 멋진 글을 올리려고 노력했다. 더 예쁜 사진들도 올렸다. 맨 얼굴로는 부족해 포토샵을 배우고, 사진을 보정하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더 예쁜 나를 만들어갔다. 가끔 직접 만나고 싶다는 쪽지를 받았지만 외부로 나갈 수는

없었다. SNS에서의 나와 현실에서의 내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 철학자와 청년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 책에서 말하는 미움 받을 용기란 나를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평가보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행동하라는 것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될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존재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나를 향해 걸어가겠다는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로 회복되기 위한 용기가 필요하다.

때로는 미움 받을 용기도 필요하다. 사람들의 기대와 다른 말도 해야 하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거리도 필요하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에 도전해

야하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해야 할 일도 있다. 이 모든 일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한 소경이 등장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눅 18:38).

예수를 향해 외치는 소경을 본 주변사람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했다. 앞서가는 자들이 소경을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크게 예수를 보고 외쳤다. 그렇다. 소경에게는 용기가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한 용기가 있었다. 그 용기를 보여준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눅 18:41-42).

예수님은 이런 용기를 믿음이라 말씀하신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용기 아닐까.

용기는 믿음이다

결혼매칭 프로그램 iWe 8기 모집

10월 17일~11월 7일 ... 12쌍 선착순 모집

이주연 자매는 iWe 6기에서 만난 청년과 지난 8월 결혼했다. iWe는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에서 운영하는 결혼매칭프로그램이다. 12쌍의 커플들이 짝을 지어 레크리에이션, 그룹 토의, 요리, 색다른 데이트를 즐긴다.

이주연 자매는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청년을 보면서 성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다. 주방에서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가정적인 모습도 엿봤다. iWe 마지막 주에는 색다른 데이트를 즐겼다. 삼청동과 경복궁길을 걸으며 깊은 대화를 나눴다. iWe는 배우자와 자연스럽게 만나는 공간이었다. 이주연 자매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과연 만남이 이루어질까?”
“세상적인 만남으로 변질되면 어찌지?”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기우였다. iWe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에 골인했다. 이제는 지인들에게 당당하게 iWe에 참여하라고 권유한다. iWe는 ‘나(i)’를 ‘우리(We)’로 바꾸고, 둘이서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I will walk with you)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청년들이 하나님의



iWe 지원자들이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몸풀기 운동을 하고 있다.

가정을 이뤄갈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만남의 장이다. iWe는 4주 동안 진행된다.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

해결할까지 골인한 커플들도 많다. 용기 내 신청해보자.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iWe 8기 모집

자격: (형제)1977~1983년, (자매)1980~1985년생
제출: 담당 교역자, 멘토 추천서(직장장사 및 지인 추천서), 혼인관계 증명서
일시: 10월 17일~11월 7일(매주 토), 2시~6시
장소: 파크타워 연회실
문의: iweonnuri4u@gmail.com

축하합니다 9월 세레자

■서빙고

이민철 680403
강성진 750123
이만열 760218
이상욱 650223
임상균 830825
주설혜 430209
최재건 950426
최재원 950426
홍성국 481206
홍진석 811214

▷ 유아

손하연 131113
손로몬 이혜진
김도희 150507
김규태 이희선
김연우 140426
김예훈 김정연
김이안 150415
김성민 김성신
박사라 131021
박상준 이윤희
윤하서 131009
윤유조 김채원

이준용 130906

이진호 김현오
임현준 141104
임정욱 민지원
장아윤 131101
장영호 전경환
장하준 130927
장부환 강연임
조인성 130813
조원준 이진경
한지유 141211
한승희 김귀영
홍지윤 131019

홍상기 여지희

김종복 560729
김종운 530820
남정이 611118
백광영 441005
손상균 650310
유영인 651007
장진관 860228
조성원 771004

▷ 유아

김서윤 131104
김승범 정주원
김하윤 130923
김길우 전해선
박준후 131106
박창남 권세라
신가원 140927
신나라 이진영
우시은 130902
우재용 백설
이루나 131103
이성빈 김지호

이혜은 131007

이상진 윤보영
임지호 131110
임원혁 이민하
지수민 130819
지정엽 송미령
최주한 141004
최준희 문서영
최예나 150327
최준혁 이지윤
한세영 140913
한정우 권효진

■특별한초대

임해리 910316
김혁진 810423
▷ 입교
이지선 870619

■양재

강성욱 610825
김재성 561106
이귀임 611215

재정국 팀장 채용 공고

온누리교회 재정국 팀장을 채용한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한지 10년 이상 된 안수집사로 재정관리와 회계업무 유경험자가 대상이다. 신앙심이 깊은 성도를 모집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이다. 이메일(changk58@onnuri.org)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 장경식장로
(02-3215-3647)

사별의 아픔 극복하는 아베스맘 세미나

10월 13일 서빙고 선교관 403호

사별의 슬픔과 위기를 극복한 여성들을 위한 모임 아베스맘이 세미나를 개최한다. 10월 13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403호에서 열린다. 아베스맘 세미나는 3주에 걸쳐 진행된다. 13

일은 사별자의 상실감 이해와 치유, 20일은 홀로 서기와 노후 대책, 27일은 사별자의 영성에 대해 배운다. 사별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회비는 3만원. 문의: 010-3217-9583

하트스쿨 사역자학교 훈련생 모집

하트스쿨 사역자학교에서 훈련생을 모집한다. 성인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하트스쿨 사역자학교에서는 미술, 음악, 놀이, 춤 등의 매체를 도구로 어린이를 위한 맞춤 화북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있다. 하트스쿨 사역자학교를 수료하면 온누리교회 회복 프로그램 ‘어린이 하트스쿨’과 ‘부모 하트스쿨’ 교사 및 스태프로 섬길 수 있다. 문의: 010-5415-3879

대청, 바이블 아카데미 23일 개강

기초, 심화, 선택과정 ... 나를 발견하는 여행 신설

대학청년부 양육 프로그램 바이블 아카데미가 개강한다. 23일부터 서빙고, 양재, 도곡교육관, 이룸에서 10주 동안 진행된다. 강의는 기초, 심화, 선택과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나를 발견하는 여행’ 강의가 신선했다. 감정에 대한 이해와 변화, 성숙 과정을 배운다.

그 외에도 신앙의 기본기를 다지는 ‘Basic Course’, CDC(리더십 순장스

쿨), XEE(관계전도) 강의도 있다. 참가하려면 소속 공동체 담당교역자의 추천이 필요하다.

선택과정은 성경탐구 40일, BTC(직장 선교), Why Mission?(선교), 하나님의 성품, 요한복음, 로마서, 나를 발견하는 여행, 일대일 양육자반이 있다. 회비는 4만원이다.

문의: 김지영 간사 02-3215-3759

/ 김미림 기자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문 모집

10월 15일까지, A4 2매 내외

일대일위원회에서 일대일 제자양육 간증문을 공모한다. 온누리교회 일대일 양육자라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동년자를 양육하면서 받은 은혜와 감동을 A4 2매 내외로 써서 제출하면 된다.

10월 15일까지 이메일(sunnynara4@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선정된 간증문은 11월 7일(토)에 있을 ‘일대일 양육자대회’에서 발표 및 시상할 예정이다.

이번 간증문 공모는 일대일사역을 재조명하고, 핵심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선정된 간증문은 일대일 역사자료로 보존된다.

문의: 최선희사역자 02-3215-3517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양재 방송실 영상 세미나 개최

10월 19일 오후 2시

양재 온누리교회 방송실에서 영상 실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10월 1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영상 미학, 편집, 중계

기술을 배우는 기초교육이다. 양재 방송실 최완근 팀장과 영상감독 2명이 강의한다. 1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 수강료는 7만원이다.

문의: 김기화 간사 02-570-7116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오이타 기 · 도 · 제 · 목

- 9월 21일(월) 러브소나타 집회를 통해 일본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 9월 22일(화) 오이타 지역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9월 23일(수) 오이타 교회들이 십자가 능력을 깨닫도록
- 9월 24일(목) 교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도록
- 9월 25일(금) 전도대상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도록
- 9월 26일(토) 세미나, 리더십포럼을 통해 일본의 가정과 교회가 회복되도록
- 9월 27일(일) 봉사자와 스태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제1066호 | 2015년 9월 20일(주일)

■ 일대일 수료 간증



못된 신앙에서 거듭나기까지

/ 박민정 자매(SNS공동체)

나는 모태신앙이다. 그런데 ‘못된 신앙’ 또는 ‘못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다. 지금까지 엄마의 기도 덕분에 살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내 신앙보다 엄마의 신앙이라는 생각이 들어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대학교에 입학하면서 타지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교회와 더 멀어졌다. 보수적인 부모님 밑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세상 문화들이 내게는 달콤한 꿀 같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다시 부모님 품으로 돌아오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끌려나갔다.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가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내게 유치부 교사로 섬겨줄 것을 권유했다. 마침 아이들을 좋아했던 나는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만 부담 없이 그 제안을 수락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을 쥐고 기도하는 아이들, 두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는 아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은 천사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하던 엄마가 아프기 시작했다. 당시 나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면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다. 위기였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굳건하게 유치부 교사 자리를 지켰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오던 내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지인의 추천으로 서울의 한 대형교회에 나가게 되었다. 새로운 마음으로 순모임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열심을 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만

났다고보다는 사람들과의 교제가 좋아서 그 자리를 지켰던 것 같다. 1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서 적잖은 상처를 받고 또 한 번 교회와 멀어졌다.

교회를 수차례 옮기던 내가 다시 찾은 교회가 바로 온누리교회다. 설교시간에 졸고, 집중하지 못하던 내가 주보에 말씀을 받아 적기 시작했다. 내 멋대로 하던 신앙생활을 조금씩 청산해 나갔다. 일대일 제자훈련도 시작했다. 일대일을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멋대로 자란 가지들을 쳐 내기 시작했다. 모태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라왔지만, 성경에 대해 무지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일대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기도응답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다. 메마른 사막에 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트리는 것처럼 묵마른 내 영혼에 깊은 생수의 강이 채워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불현 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 그동안 사람들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것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나는 기도의 힘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동안 엄마가 나를 위해 쌓아놓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고, 지난날을 많이 돌아봤다. 지금은 누군가 내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주셨다는 것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다.

■ 젊은부부학교 수료 간증



건강한 가정 만드는 세 가지 메시지

/ 홍정기, 김혜진 부부(젊은부부학교 수료자)

둘째가 생기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다.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힘이 들었다. 나의 약한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을 묵상하게 됐다. 남편의 도움이 절실했다. 바쁜 남편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마음으로는 원망했다.

남편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나를 도왔지만 나는 감사해하지 않았다. 이러한 생활을 얼마나 반복했을까. 나에 대한 생각과 결혼생활에 대한 생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자로 낙인찍힐 것 같은 두려운 생각도 들었다. 나의 이러한 마음을 알았는지 남편이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해보자고 권유했다.

젊은부부학교는 나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주었다. 첫째, 희망이었다. 한 강사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다. 티격태격 살아가는 모습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메시지였다. 다투면서 느끼는 원망과 분노는 이해와 사랑의 용량 부족 문제라는 것을 인지 시켜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 생활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2014년 12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셨던 마음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 당시 남편은 가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지만 나는 감사를 잃고 지냈다. 그것을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알게 됐다. 하나님이 남편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워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

둘째, 믿음의 결단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고 있는지가 늘 불안했다. 믿음의 가정으로 살고 있는지, 이 삶의 끝은 어디인지, 어떤 결과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가 두려웠다. 조 나눔을 통해 그 두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었다. 3주차 조별 나눔을 하면서 두려움에서 벗어 날 수 있는 열쇠를 찾았다. 연륜이 있는 가정들의 부부생활을 들어보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른 가정도 겪고 있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부부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믿음의 결단이었다.

셋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있다. 나는 결혼생활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었다. 반대로 내가 차선을 선택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기에는 최선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우리 부부는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을 목표로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했다. 하지만 좋은 부모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가정을 지키는 선한 영향력이 건강한 가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배웠다.

■ 2015 회복축제 ‘The 기쁨’ 참가후기



‘기쁨공동체’를 위하여

/ 한옥영 상담사(온누리 상담실)

나는 이번 회복축제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하게 알게 됐다.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해 부족하지만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상담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기쁨훈련이 되어있지 않으면 상처는 더 큰 두려움으로 자라난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상처받은 영혼들은 회복이 필요해 힘들게 상담실 문을 두드린다. 상담실을 찾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희미해져 있다. 과거의 트라우마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경우도 있다. 나는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 있다. 회복은 마음과 머리로 기쁨을 찾는 것이며, 그 기쁨을 통해 참된 정체성을 발견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상담실을 찾는 영혼들이 참된 정체성을 찾고 살아가도록 지지해주는 것이다.

나는 주로 인터넷 중독 상담을 한다. 인터넷 중독자의 사례는 다양하다. 부모의 높은 기대에 좌절한 아이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자기 세계에 도취된 청년들,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회사생활에 치여 인터넷에 빠진 중년들,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인터넷으로 위안 삼는 노년들까지 다양한 인터넷 중독자들에게 기쁨으로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접근법을 제시했다. 강사들은 기쁨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국 인터넷 중독에 빠진 내담자들에게 기쁨을 훈련시켜 지속적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들이 참된 정체성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이 중독으로부터 치유되는 길이라는 것이다.

참된 정체성 회복을 위한 지속적 기쁨은 공동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독자들과 내담자들의 공통점은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져 있다는 것이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우리 상담사들은 내담자들의 치유를 위해 가까이 기쁨의 공동체를 이룰 준비가 되어있다. 대부분의 상담사들은 내담자의 심리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대입한다. 나는 이번 회복축제에서 우뇌를 사용해 기쁨으로 반응하기 이전에 좌뇌를 이용해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나를 발견했다. 내담자와 마주할 때 기쁨으로 대화하기 전에 내가 가진 최대한의 정보를 사용해 분석하려 했다. 물론 정확한 분석은 필요하다. 그러나 내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 ‘기쁨센터’가 내담자와 관계를 형성한다면 상담의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기쁨의 관계로 공동체를 이룬다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치유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다. 성숙을 위한 기쁨이 회복되기를 기도한다.

■ 한터공동체 필리핀 아웃리치 후기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보였다

/ 나정건 학생(한터공동체)

나에게는 지우고 싶은 기억이 있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일이다. 나는 그 기억들이 떠오르려고 하면 피하게 된다. 그 기억들이 떠올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싶었다. 그러던 외중에 필리핀 아웃리치를 가게 됐다. 찌는 더위가 나를 반겼다. 익숙하지 않은 날씨도 진동했다. 필리핀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난해보였다. 북한이 떠올랐다. 건물이며, 사람들이며, 대중교통까지 내가 북한에서 살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아웃리치 첫 날은 강의를 듣고, 현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보냈다. 필리핀을 탐방하면서 현지 아이들을 만났다. 그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을 추고 있었는데 무척 자유로워보였다.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럿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췄다. 그 아이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아이들은 우리를 마치 연예인을 보듯 맞이했다.

이튿날에는 소록유니 마을에 방문했다. 소록유니 마을은 필리핀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이곳은 필리핀 최초로 일반인 마을 안에 개발된 한센인 정착촌이다. 우리를 인도한 선교사님은 필리핀 한센인들에게 삶의 의

욕을 심어주기 위해 만든 곳이라고 했다. 이곳에서는 한센인들에게 가정 당 주먹 한 채와 텃밭, 가족을 분양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소록유니 마을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언어는 다르지만 그들도 북한 사람들처럼 어렵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어린아이를 만나는 순간에는 가슴이 더 아팠다. ‘무엇을 먹고살까?’ 걱정이 될 정도로 아우어 있었다.

한센병 후유증으로 생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다.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으로 생긴 내면의 흉터도 선명했다. 그들은 바깥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고 있었다. 생활비가 부족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도 그들은 행복해보였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있었다. 해맑은 웃음을 보여주는 그들에게 우리는 진심어린 찬양을 선물했다.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이후 내 삶이 변화되었다. 몸과 마음이 치유된 것 같았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선물해 준 한터 식구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God Bless You.



장로칼럼 김민호 장로(가정사역공동체)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젊은부부학교는 하나님의 원리로 가정을 세우는 귀중한 사역이다. 내가 젊은부부학교 담당장로가 된 것은 2014년 봄이다. 처음 젊은부부학교 담당장로가 되었을 때가 기억이 난다. 단상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메시지를 전하려는 순간이었다. 아이들이 단상 위를 뛰어다니고, 여기저기서 영아들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한 마디로 혼돈이었다. 혼돈 속에서 사역을 시작한지가 벌써 2년이 되었다.

오는 10월 17일부터 42기 젊은부부학교가 시작된다. 21년 역사를 자랑하는 온누리교회 가정사역공동체의 귀한 사역 중 하나다. 두란노의 인기 프로그램 결혼예비학교의 바통을 이어받아 결혼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이다. 강의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유되는 회복여행이다. 남녀가 어떻게 다른지 이해하는 것부터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진정 하나가 되도록 돕는다. 가정 안에서 에덴동산의 참모습(영안과 기쁨)이 회복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다. 생각만 해도 즐겁다. 가정 안에서 에덴동산이 회복된다는 것이 말이다. 걱정, 근심, 다툼, 미움, 갈등을 넘어 각 가정에 생명의 샘이 흐르고, 설만한 물가에서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초장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가정에 바라는 사명이다.

일반 가정의 이혼율과 크리스천 가정의 이혼율이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성도는 거룩함으로 구별된 자들이다. 세상이 온데 구별되지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이다. 믿는 가정이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 커녕 불신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겠는가?

나는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세상과 구별된 많은 믿음의 가정이 생겨나기를 기도한다. 청년부에 있는 젊은부부들이 성인공동체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큰 변화를 맞게 된다. 예배 참석도 만만치 않을뿐더러 육아로 인해 육신이 지치고, 영적 슬럼프에 빠지기도 쉽다. 교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나는 수많은 가정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가장 뿌듯하다. 보람을 느낀다. 처음에는 표정이 어두웠던 참가자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밝아지는 모습을 볼 때 행복하다. 젊은부부학교에 참가한 부부들이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는 것을 볼 때 도 마찬가지다. 부부 문제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고 간다는 간증을 들을 때면 오히려 내가 감사한 마음이 든다. 믿지 않는 가정이 젊은부부학교를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출석하기로 결심하는 것을 볼 때면 젊은부부학교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젊은부부학교의 슬로건은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상 속에서 무너져가는 가정을 세우기 위해 젊은부부학교는 오늘도 열심히 달리고 있다. 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되는 젊은부부학교가 되기를 소망한다.

문의: 최병선 총무(010-3663-7355)



권사칼럼 김옥연 권사(한마음 정신회복예배)

정신적 문제 호소하는 지체들 돕는 ‘한마음공동체’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10월, 온누리교회 한마음공동체가 문을 열었다.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에 있는 옥탑방에서 시작해 홀기도실에 이어 지금은 선교관 101호에서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나도 1998년부터 이 사역에 동참했다. 한마음공동체에 오는 많은 지체들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했다. 사회로 학교로 돌아갔고 결혼도 했다. 건강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 그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한마음공동체를 섬기면서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많았다. 이 사역은 결코 쉽지 않은 회복의 여정이다. 나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 그 동안의 내 기도를 아셨는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욱 커져만 갔다. 연은 열매가 풍성하다.

한마음공동체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들이 모인 공동체다.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과 그 가족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다. 매주일 한마음 정신회복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소그룹 순모임을 한다. 순모임은 증상이나 연령대로 나눠서 한다. 순모임이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고, 치유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건강한 자아 회복과 관계 맺기, 사회재활훈련 등을 배우고 익힌다. 이외에도 한마음 상담과 치유활동, 치유기도모임, 정신건강 회복수련회도 진행한다.

상담은 담당목사님과 정신과의사, 변호사로 구성된 상담팀이 맡는다. 환우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신앙, 정신질환, 법률에 대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기도도 해주고 있다. 주중에는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한마음 치유활동이 진행된다. 음악치료, 미술놀이, 탁구교실, 요리교실, 성경일독학교 등의 활동 프로그램이다. 성경 안에서 회복되도록 돕고, 소통하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한마음공동체는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모여 한마음 사역의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2015 회복축제 ‘The 기쁨’은 한마음공동체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정신의학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축제의 장(場)이었다. 무엇보다 뇌 과학적인 해석을 통해 건강하지 못한 생각과 감정들의 실체를 배운 것이 유익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했다. 또한 하나님의 입재 가운데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다.

앞으로 한마음 정신회복예배에서는 ‘조현병 극복하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병을 말한다. 11월 7일과 14일 2주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조현병 전문의가 강사로 참여해 조현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마음공동체는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체들을 돕고 있다. 예수님이 계시는 1번지가 아닐 수 없다. 온누리 한마음공동체에 오면 사랑이 있고, 공감이 있고, 회복이 있다. 언제든지 환영한다.



신앙에세이 조준목 목사(J4U공동체)

광야에서

광야, 그곳은 힘든 곳이다. 마실 물도 없고, 쉼 그늘도 없는 고독스러운 곳이다. 도움을 주는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는 외로운 곳이다. 걷고 또 걸어도 똑같은 풍경을 만나는 단조로운 곳이다. 누구도 오래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 곳이다. 이런 광야가 성경의 주된 배경이라는 것이 매우 흥미롭다.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성경 인물들은 광야에 머물렀다. 모세는 40년, 다윗은 13년, 세례요한은 대부분의 생을 광야에서 보냈다. 예수님도 금식하며 광야에 머무셨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이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드리는 기도마다 응답을 받았다. 관계의 문이 열렸고, 평생의 동역자들을 만났다. 학업성취도 높았다. 고3 시절을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즐겁고, 풍성하고, 행복했다.

그런데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다.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 관계의 문이 닫히는 것 같았다. 늘 외롭고 우울했다. 나의 자아는 발로 차인 음료 캔처럼 찌그러졌다. 뜻밖에 찾아온 내 인생의 광야였다.

그 광야는 나에게 강력한 흔적을 남겼다. 내 영혼에 큰 흉터가 생긴 것 같았다. 한동안 눈을 감고 있으면 그때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광야를 벗어나는데 약 10년이 걸린 것 같다. 오랜 시간 앉아 있다가 일어설 때 뻣뻣하게 느껴지는 무릎처럼, 수년 동안 말을 안 하다가 입을 뗀 것처럼 회복이 더뎠다. 낯설게 느껴졌다. 한동안 내 코끝에서 광야의 냄새가 느껴질 정도였다.

지독했던 광야 시절을 보내고, 트라우마에서도 벗어나니 보이는 것이 있었다. 광야의 유익이랄까. 광야에서 마주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광야는 메이크업 클렌저 같았다. 화려한 색조화장으로 가리고 있던 나의 내면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다. 너무 오랜 시간 가면 쓰고 있어 나 자신조차 잊고 있었던 참된 나를 볼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발견한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렇게 발견한 나는 기대보다 훨씬 형편없었다. 사랑스럽지도, 자랑스럽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런 나를 야기시는 하나님이 계셨다.

살다보면 광야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 코끝에서 느껴지는 익숙한 냄새가 난다. 어떤 이들은 지금 한창 광야를 지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애정을 넣어 신뢰가 간다. 꺾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없는 견고함이 있기 때문이다.

광야의 핵심은 홀로섬(solitude)이다. 눈물이 날만큼 가슴시린 고독함이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한다.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다윗은 광야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시 63:1-2).

많은 청년들이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인 광야를 걷고 있다. 나는 그들이 광야에서 손쉬운 것으로 스스로를 채우지 않기를 권면한다. 술, 게임, 마약, 성적 쾌락 등으로 덮어버리지 않기를 권면한다. 하나님을 찾기를 권면한다. 그렇게 한다면 광야는 또 다른 인생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 나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만날 또 다른 광야들을 기대하고 있다. 이 길 끝에서 각자의 흔적들을 나누며 담소할 날을 소망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적 교회는 제도와 형식의 틀이 없는 유동체 같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 리더십들이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회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판단하고, 생각한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약속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약속된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자에게 임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역사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성령 세례를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신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별력이 더 뚜렷해집니다. 더 지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동시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엉뚱한 질문 같지만 근거 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맞는 질문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종말의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이뤄지냐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논리가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요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8절).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그들의 질문은 모두 잘못되었다고 했습니다. 명사, 동사, 부사가 모두 하나님 나라를 혼동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회복하다는 단어는 영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성령으로 통치되는 영적인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때입니까?”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쓴 것을

보면 여전히 편협한 민족주의적인 열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입니다.

웨슬리 뉴 비긴이라는 선교학자는 사도들의 바로 이 질문이 이 시대 많은 교회들이 빠지는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 역사를 끝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빨리 역사를 끝내달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려야 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증인공동체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8절).

사도행전적 교회의 세 번째 정체성은 증인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은 증인행전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도들이 땅 끝까지 흩어져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실을 왜곡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투스라’입니다. 순교라는 단어로 같이 씁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는 예수님에 관하여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끌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하는 한 사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소수의 성도들이 로마제국을 뒤집어엎고,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이 사실을 말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희생하더라도 진실대로 말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생명의 위협이 오면 사실을 왜곡해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절대로 사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약은 사실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믿고, 사실이 사실대로 전해질 때 세상이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적 교회의 증거가 온 세계를 향해 나갑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갑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곳이 땅 끝입니다. 이웃집일수도 있고,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일수도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합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심으로 역사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11절).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재림의 날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적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온 세상에 증거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가 자라 추수할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기간이요, 은혜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스런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에는 역사가 끝날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증인공동체, 성령공동체, 예수공동체로서 사도행전교회의 참된 모습을 이뤄가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볼만한 영화 ‘싱 오버 미’



동성애에서 벗어나 세계적 찬양사역자가 된 ‘데니스 저니건’

볼만한 영화 한 편이 개봉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 ‘싱 오버 미’다. 이 영화는 하나님을 만나 동성애에서 치유된 실제 사례를 담았다. 9월 24일 개봉한다.

영화 ‘싱 오버 미’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사역자 데니스 저니건(Dennis Jernigan)이 주인공을 맡은 다큐멘터리 영화다. 데니스 저니건은 널리 알려진 찬송 ‘나를 노래하라’ ‘약할 때 강함 되시네’를 작사 작곡했다.

이 영화는 데니스 저니건의 실제 이야기를 담았다. 그가 1989년 작곡한 ‘주 나의 모든 것’이 이 영화 내용을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1959년 미국 오클라호마 주에서 태어났다. 5살 때 성적 학대를 경험하고 유년기에 성적체성 혼란을 겪었다. 그후 그는 동성애자로 살았다. 동성애자로 살면서 죄책감과 혼란, 고통을 경험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동성애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수많은 절망을 겪어야 했다. 그는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동안 계속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의 삶은 속도는 느렸지만 분명하게 변화되고 있었다.

결국 동성애에서 벗어난 데니스 저니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경험을 노래에 담기 시작했다. 그 찬양이 바로 ‘주 나의 모든 것’이다. 고통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 이 찬양을 만든 배경이 되었다.

데니스 저니건은 88년 멜린다 휴잇과 결혼해 9명의 자녀를 뒀다. 그는 지금도 찬양사역뿐 아니라 동성애로 고통 받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영화는 필름포럼이 처음 수입·배급하는 작품이다. 필름포럼은 문화선교 차원에서 설립된 기독교영화 전용관이다. 관람료: 성인 8,000원, 단체 30인 이상 6,000원, 20인 이하 7,000원
문의: 필름포럼 02-363-2537